

미-중간 해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박 영 준
국방대학교

2016년 1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6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미-중간 해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ISBN 979-11-87558-21-7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미-중간 해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박 영 준
국방대학교

I. 문제의 제기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및 군사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양국의 전략이 전통적 문화의 차이, 서양과 동양의 문화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애런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는 프랑스 사상가 프랑수아 줄리앙(Francois Julien)의 관찰을 인용하면서, 서구의 외교 및 군사전략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상대적으로 동양의 전략은 목표 제시가 모호하며, 상황 중시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Friedberg 2011, 123-124).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도 서양의 전략이 상대편 국왕을 움직일 수 없는 국면까지 몰아붙여 결정적이고 전면적 승리를 추구하는 체스판을 닮았다고 한다면, 중국의 전략은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주변을 장악하고, 상대적 이득을 축적하는 바둑판에 비교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Kissinger 2011, 23-25). 중국 국방대학의 류밍푸(刘明福, Liu Mingfu) 교수도 서구세계의 전략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제시된 것처럼 결정적 지점에서의 공세를 중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군사전략은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것처럼, 군사적 승리보다는 술책과 외교에 의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어적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한다(Liu 2010, 99).

물론 문화와 전통의 요인이 국가의 대외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동양과 서양, 중국과 미국의 전략문화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는 문화적 결정론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외전략은 해당 국가가 보유하는 국력자원의 규모,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질서 속에서의 국가적 위상에 의해 보다 깊은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19세기 후반기 독일의 국력자원과 국제적 위상이 증진하면서,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기의 국가전략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상의 양지를 추구하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표방한 바 있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이탈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면서, 교토학과 등 일련의 지식인들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국제협조주의에서 벗어나 일본의 세계사적 사명을 모색하고 국제질서상의 지위 상승을 정당화하는 담론들을 제기한 바도 있다(高坂正顯, 西谷啓治, 高山岩男, 鈴木成高 1943 참고). 즉 개별국가의 대외전략은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력 지위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질서상 강대국의 지위로 부상하게 된다면, 국가의 대외전략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미국의 승리로 귀결된 이후 미국 주도 하의 일극체제 양상을 보였던 국제질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국력 부상에 따라 체제 변화의 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세계 2위의 경제규모로 부상한 중국은 국방예산 측면에서도 매년 10% 이상을 증액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증강의 추세에 비추어 2020년대 중반 이후 미-중간 국력수준의 역전이 전망되기도 한다.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의 수준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대외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담론이 활발하게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신흥 강대국 중국이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수용하고 현상유지적인 성향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해 도전하면서 현상변경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성향이 복합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에는 특히 2010년대 이후 아태지역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해역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 경쟁 양상도 노정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钓鱼岛)와 남중국해의 파라셀(Paracel), 스프래틀리(Spratley)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해양능력 전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반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으로 파악하고, 아태지역에 대한 재균형전략(rebalancing)을 표방하면서, 해, 공군력의 60% 이상을 아태지역에 전진배치하여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미-중간의 대립구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현실주의 논자들은 신흥 강대국의 국력이 부상할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간의 전쟁 현상을 두고 관찰한 것처럼, 기존 강대국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할 수 없다는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이론을 적용하여 미-중간 무력충돌의 불가피성을 제기한다(Allison 2015; Rosecrance & Miller 2015). 이에 대해 다른 논자들은 미-중간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 공진(co-evolution)의 필요성을 역설한다(Kissinger 2011; Liu Yang 2015). 과연 21세기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과 군사력 증강 실태는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미-중 양국의 전략논의와 군사력 증강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미-중간 국가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이 표방하는 대외전략 및 해양전략 논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둘째, 미-중간 군사력 증강과 군사전략의 성격, 특히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배치되고 있는 해군력의 증강과 그 운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셋째, 미-중 양국이 관여하고 있는 양자간 안보협의, 혹은 다자간 해양안보 레짐은 미-중간의 해군력 증강과 분쟁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처한 국가들은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어떤 외교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II. 21세기 미-중 간 대외전략 경쟁: 제로섬 게임 혹은 공진(co-evolution)?

1. 중국 대외전략 논쟁: 화평발전론 vs 대미 전략적 경쟁론

21세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중국 내부의 국제관계 및 대외전략 담론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Schweller & Pu 2011). 본 연구는 중국내의 대외전략 담론들을 기존의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고, 크게 평화발전론과 전략적 경쟁론의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Yan 2011).

평화발전론은 1991년 여름 당대의 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 Deng Xiaoping)이 전략방침, 특히 “도광양회 유소작위”의 방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 경제발전을 통해 국력을 기르며, 대외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피하라는 방침이 탈냉전기 중국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이 되었던 것이다. “도광양회”의 방침은 2003년 이후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溫家寶)의 제4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화평굴기론, 혹은 화평발전론의 형태로 계승되었다. 화평발전론의 대외관계 논리는 정비젠(鄭必堅, Zheng Bijian)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2005년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하고 있지만, 결코 제1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독일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독일 및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점진적 개혁과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Kissinger 2011, 498-499).

후진타오 정부의 국무위원을 역임한 다이빙궈(戴秉國, Dai Bingguo)도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 및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2010년 12월에 발표한 글에서 다이빙궈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발전과 국제협력의 정책방침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계급투쟁의 시기에서 경제건설의 시대로, 고립의 시대에서 개방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혁명을 원하지 않으며, 아시아를 지배하거나 미국을 대체하는 일 없이 법률을 준수하는 국제공동체의 멤버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Kissinger 2011, 508-512).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왕지스(王緝思, Wang Jisi) 도 중국이 대국 수준으로 국력이 성장하였지만,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대립하기 보다는 상호협력하면서, 경제적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 군사적으로 대외협력 관계 확대, 외교적으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이슈별 영향력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ang 2011).

2012년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등장하고,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론이 표방되기 시작했다. 중국내 식자들은 신형대국관계론을 평화발전론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고, 그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상하이 푸단대학 미국학연구소장인 우신보(吳心伯, Wu Xinbo) 교수는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재균형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배제하고, 상호존경과 상호이익에 기반하는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주변국과도 평화발전 정책에 따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의 결성을 추진하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대응 정책(tit-for-tat)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Wu 2012). 나아가 우신보 교수는 미국이 동맹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많은 안보 파트너들을 만들어내고 있듯이, 중국도 아태지역 소규모 및 중급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많은 파트너를 만들고, 미국 동맹국들과도 친구가 되는 스마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부연한 바 있다.¹

그런데 다른 한편 2007-08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한층 향상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위상에 대한 전략적 경쟁론, 나아가 미국을 대체하는 강대국 건설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국방대학 교수인 류밍푸(Liu Mingfu) 인민해방군 대교(senior colonel)는 2010년 발간된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21세기는 기존의 챔피언 국가인 미국에 대해 도전 국가인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를 위해 중국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의 제반 측면에서 미국의 그것을 능가하여 여타 국가들의 지향점이 되는 모델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 글로벌 리더가 되려는 전략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그는 20세기 전반기의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20세기 후반기의 소련은 당대 강대국인 영국이나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도전하면서 각각 결투(duel)나 복싱경기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21세기 중국은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도전하기 보다는 가치와 문화 측면에서 도전할 것이며, 따라서 미-중 간의 경쟁은 종전 강대국간의 군사적 대립관계와 달리 상호에도 도움이 되는 장거리 육상경기와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Liu 2015, 45-49).

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인 옌쉐통(阎学通, Yan Xuetong)은 기존의 강대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간의 국력격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로섬적인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질서는 미-중간의 양극체제적인 양상이 노정될 것이며, 군사적 충돌은 아닐지라도, 양국 간에 경제, 외교, 문화, 정치 면에서 상당 기간 경쟁관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옌쉐통은 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에 승리하기 위해 중국으로서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 이외에 고대 중국의 유가사상에서 강조하던 도덕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정의와 공공성을 갖춘 조화사회를 추구하고, 대외적으로 도덕적 지도력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Yan 2011). 특히 그는 기존의 비동맹 원칙 고수 등 중국 외교실태를 비판하면서, 중국도 여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대외경제원조를 줄여서라도 해외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의 군사기지들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uang 2016).

중국 군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미국 인식은 2012년 1월, 미국이 아태지역에 대한 리벨런싱 정책을 정식 표명한 이래 한층 강경해 졌다. 동년 12월, 중국 국방기술대학 우 구이푸(武桂馥, Wu Guifu)는 미국의 리벨런싱 정책이 결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 남중국해, 필리핀,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를 잇는 중국 봉쇄라인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Wen 2013).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리제(李杰) 연구원은 미국이 베트남과 필리핀을 부추겨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미 해군이 추구하는 공-해전(Air-Sea Battle) 전략이나 미 해병대 출신 햄즈

¹ 2014년 12월, *Global Times*가 주최한 연례 세미나에서 우신보 교수가 발표한 내용 요약 참조(*Global Times* December/7/2014).



(T.X.Hammes) 대령이 제기한 근해통제(Offshore Control) 전략이 중국 해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계하였다(Li 2013).

이같이 21세기의 중국에는 국력부상 및 국제적 지위 증진을 배경으로 향후 대외관계 및 대미 관계에 대해 현상유지적인 평화발전론(정비전, 다이빙귀 등)과 대미 도전적인 전략적 경쟁론(류밍푸, 옌쉐통 등)의 대외전략론이 대립하는 구도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대중 전략 논쟁: 공진(co-evolution) 전략 vs 밸런싱 전략

1990년대 냉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글로벌 질서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향유해 왔다. 그러한 미국에게 90년대 중반 이후 국력수준이나 국제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은 대외전략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채택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도 협력견지의 입장과 견제 중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n 2015; Liu 2015).

중국의 부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이 협력의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보는 주장은 헨리 키신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조셉 나이 등이 주도하고 있다. 헨리 키신저는 인구 노령화 문제와 도농 격차 등 내부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대립이나 세계 지배 등을 추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 내 신보수주의자들이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정권교체를 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기하면서 대중 강경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Kissinger 2011, 520-525). 그는 미국이 중국과 제로섬 게임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그는 미-중 관계가 각기 국가목표를 추구하면서, 상호협력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공진(co-evolution)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역내 관련 국가들이 참가하는 태평양 공동체(Pacific Community)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미-중 양국 간의 전략적 불신 가능성을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와 같은 역내 불안정 요소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제언한다(Kissinger 2011, 526-528).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2012년에 발간된 책에서 2008년 G20의 결성 등에서 보여지듯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에로의 지정학적 권력 이전, 그리고 상대적인 미국의 국력 감소는 시대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방침을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으로 견지하고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단일 국가의 패권을 확립하는 질서를 전망하기는 곤란하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한다면, 글로벌 패권국이 부재한 가운데 여러 지역적 강국들이 다소 혼란스런 배열 속에 존재하는 질서가 오히려 미래 국제질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런 전망 속에서 그는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이중의 역할 전략(dual role)을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대서양 방면에서는 유럽의 통합과 활력이 지속되도록 관여하고, 아태지역에서는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Brezzezinski 2012, 185).

대테러전쟁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 방향으로 스마트외교를 제시했던 하버드대학의 조셉 나이(Joseph S. Nye)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이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성격을 지



녀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는 냉전기의 미국-소련관계와 달리 21세기의 미국과 중국은 상호가 최대교역국이며, 경제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 지극히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호전적이 되어서 안되며, 에너지, 기후변화, 금융 안정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야 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예 봉쇄정책의 오해를 사고 있는 리벨런싱 정책을 폐기하고, “통합하되 헤징하는”(integrate but hedge) 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Nye 2013a; Nye 2013b; Rosecrance & Miller 2015).

다른 한편 중국의 부상이 결국 아태지역 및 글로벌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와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밸런싱 정책을 주장하는 논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특히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부상하는 아테네의 국력성장이 기존 강대국 스파르타의 불안을 초래하여,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미-중 관계에 적용하며,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시각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하버드대학 그레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는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강대국과 불가피하게 무력충돌을 하게 된다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 미-중 관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Allison 2015; Rosecrance & Miller 2015). 그는 16세기 이래 기존 대국과 부상하는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16가지 사례를 조사하면서, 이중 12가지 사례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양국 지도자간에 허심탄회한 전략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미-중 간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으나, 그는 70년대에 진행되었던 키신저와 저우언라이 간의 전략대화 같은 양국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양에서 전개되는 양국 해, 공군간의 우발적 충돌이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빠지는 도화선(flash point)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애런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도 역사적으로 신흥국가의 부상이 기존 강대국과 불편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미-중관계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에 의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불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면 반드시 아태지역 내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대체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Friedberg 2011, 166). 중국은 외교적으로 역내에서 타이완을 끌어당기고, 일본을 견제하며, 미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bring Taiwan back, push America out, keep Japan down), 한국을 미국과의 동맹에서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Friedberg 2011, 174). 군사적으로 중국은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anti-access/area denial) 하에 해, 공군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미국의 전력투사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방지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자유주의적인 개혁도 지체될 것이고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국가이익 추구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는 부시 및 오바마 정부가 연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보 면에서의 봉쇄, 경제와 외교 측면에서의 관여를 병행하는 정책(congagement) 방향을 수정하여, 대중 밸런싱, 혹은 세력균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Friedberg 2011, 254).

이외에도 많은 싱크탱크와 전략가들이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대외전략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2015년에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선임연구원들인 로버트 블랙윌(Robert D. Blackwill)과 애슐리 텔리스(Ashley J. Tellis)가 공동집필한 보고서가 그런 흐름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Blackwill & Tellis 2015). 이들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주도적인 힘을 대체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간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기존 국제질서에 관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 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지원하였고, 결국 미국은 현재 중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과의 평화 공존 및 상호이해 증진은 불가하며, 오바마 정부는 현재 취하고 있는 대중 관여정책을 변경하여, 대중 군사력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내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밸런싱의 대전략(new grand strategy)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illsbury 2015).

3. 미-중 간 대외전략 대립구도의 평가와 전망

이상에서 언급한 중국과 미국 양국의 대외전략 담론을 도시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게 될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기존의 국제질서와 그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 평화발전의 길을 도모하자는 화평발전론과, 군사, 외교,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모델 국가를 만들자는 전략적 경쟁론의 대외전략 담론이 대립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Friedberg 2011, 261). 미국 내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협력적 태세를 취하고, 나아가 공진(co-evolutin)적 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는 협력론과, 그를 견제하자는 밸런싱(balancing) 전략론이 대립하고 있다.

[표1] 미국과 중국의 대외전략 상호 구도

China\ U.S.	co-evolution: Kissinger, Brzezinski	balancing: Allison, Friedberg, Blakcwill & Tellis
peaceful development: Zheng Bijian, Dai Bingguo	①cooperation	②offensive by the U.S
strategic competition: Liu Mingfu, Yan Xuetong	③offensive by China	④confrontation/conflict

미국과 중국의 정책 당국이 어떤 정책옵션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미-중 관계는 향후 3가지 시나리오, 즉 미-중 협력 구도, 미-중간 경쟁과 협력의 병진 구도, 미-중 대결과 분쟁 구도 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미-중 협력 구도는 ①의 상황과 같이 미국의 공진론과 중국의 평화발전론이 각각 추진되는 경우이다. 경쟁과 협력의 병진구도는 ②와 ③의 상황과 같이 각각 협력과 경쟁이 병행되는 양상이다. 대결과 분쟁 구도는 ④의 상황과 같이 미국 내에서 밸런싱론, 중국 내에서 전략적 경쟁론이 선택되면서, 미-중간 군사적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이다.

현재로서 미국과 중국은 정부간 차원에서 경쟁과 협력의 병진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전략적 경쟁론의 정세인식에는 동조하면서도 실제 정책 면에서는 평화발전론의 주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경제 및 외교영역에서는 중국과 협력 기조를 견지하지만, 군사적으로는 후술하듯이 견제와 밸런싱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미-중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의 여부가, 미-중 양국의 국가위상 및 이익, 나아가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리적으로 양국 사이에 위치하면서 양국과 각각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 타이완, 동남아 국가들의 국가이익이나 안위에도 양국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경제적, 외교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④와 같은 미-중 양국의 대결 및 분쟁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과 맞서면서 그 군사적 도발 및 핵개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중의 위기가 될 것이다. 미-중 관계의 공진(co-evolution) 및 태평양공동체 결성을 주장하는 키신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내의 전략적 경쟁론이나 미국 내의 밸런싱론자들이 양국 정부에서 승인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Kissinger 2011, 521). 이 지적은 한국이나 아태지역 국가들의 국가이익 및 지역질서 안정에도 부합된다. 미-중 양국의 전략 구도는 현재 분기점에 와 있다. 과연 미-중 양국간의 관계가 경쟁과 대립의 구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쟁 속의 협력 국면이 병행될 것인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양국간 군사력 경쟁과 양국간 분쟁을 구속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실태 측면을 이하에서 살펴기로 한다.

III. 미-중 간 해양전략과 해군력의 대립

세력전이론자들은 국가간 국력의 상대적 변화가 국제체제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 불균형 속에서 신흥 대국과 기존의 강대국 간에 새로운 국제체제 균형을 위한 패권경쟁이 전개된다고 주장한다(Gilpin 1981). 세력전이론자들은 이 경우 국력의 기준으로 대체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시하고, 군사력 가운데에서 특히 해군력의 보유 여부를 국제질서상 강대국의 요소로 중시한다(Modelski 1987). 물론 20세기 중반 이후 기술의 발전의 추세에 따라 핵무기와 우주공간에 배치된 위성시스템, 그리고 사이버 무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미-중 간에는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간 세력경쟁을 전망하기 위해서 각각이 추진하는 해양전략의 성격과 해군력의 배치 및 운용 여하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 중국과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 그에 따른 해군력 건설과 운용 양상을 비교적 시각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아태지역 해군력 전개²

1) 해양전략의 적극화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국가였고,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새방론(塞防論)과 해방론(海防論)의 논쟁에서 나타났듯이 육상방어에 군사력 건설의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점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직후의 시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중국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군력 건설과 해양전략 추구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1985년 덩샤오핑이 근해방어전략(offshore defense strategy)의 개요를 제시하였고, 이를 이어받아 1986년, 당시 류화칭(刘华清, Liu Huaqing) 해군 제독은 제1도련과 제2도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류 제독은 당분간 중국 해군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제1도련(岛链, first island chain)을 작전반경으로 설정하지만, 장차 해군력이 발전하게 되면 서태평양 해역을 포함하는 제2도련(second island chain)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oss 2009, 60; Cole 2014, 43). 덩샤오핑 및 류화칭 제독의 해양전략개념 제시에 따라 중국은 종전에 표방해온 연안방어(coastal defense) 전략에서 탈피하여 제1도련 해역 내에서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근해방어(Near Sea Defense 또는 Offshore Defense) 해군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Secretary of Defense 2011, 22-23).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중국 해군의 근해방어 전략 추진은 구체적으로는 타이완 해협 위기 발생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지연, 차단시키는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9).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정치가들과 해군 지휘관들에 의해 향후 중국이 해양강국을 지향해야 하고, 해군의 전략도 근해방어전략에서 벗어나 원해방어(Far Sea Defense)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7년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근해(近海)종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서서히 원해(遠海)방어형으로 전환하여 원해기동작전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영해와 해양권익을 지키고, 해상운수 및 에너지 자원의 전략 루트 안전을 확보할 것”을 보다 명확하게 지시하였다(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11). 2009년 4월, 우승리(吴胜利) 해군사령원은 원해 보급과 구난구조, 나아가 기동능력과 전략적 투사능력의 건설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防衛省防衛研究所 2012, 21).

2011년에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 2010》은 해군의 근해방어전략 임무를 재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해에서의 작전능력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Secretary of Defense 2011, 61). 일부 퇴역 제독들은 중국이 원양해군기지를 보유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고, 일부 해군장교들은 중국 해군이 구미의 선진 해군들에 비해 전력과 활동범위가 아직 뒤쳐져 있으니, 이를 보다 증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ang 2012).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2012년 11월8일,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당대회에서 퇴임하는 후진타오 총서기는 ‘해양강국’(maritime power)건설을 선언하며, 중국이 향후에 해양자원개발과 생태환경 보호 등 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고, 이를 위해 해양, 우주, 사이버

² 이하 중국 및 미국 해양전략 및 해군력 전개 상황은 박영준(2015a) 및 박영준(2015b)을 보완, 수정했음을 밝힘.



안보를 방어하는 군사능력도 증강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7).

2012년 말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 이후 중국의 해양전략은 보다 적극화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해양에 더해 더욱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양강국을 위한 노력을 더욱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중앙외사영도소조(Central Foreign Affairs Work Conference)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이 영토적 주권과 해양권익을 방어하는데 확고한 태세를 갖추야 함을 재강조하였다(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23).

해양강국의 새로운 정체성 하에 적극적 해양권익 옹호를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향은 중국 국방백서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2013년에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는 인민해방군이 포괄적인 근해작전(offshore operations) 수행을 위한 전력을 현대화하고, 대양 능력(blue water capabilities)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틀을 중국군사전략으로 정하여 2015년 발간된 국방백서는 인근 연해국가(offshore neighbors)들이 도발적 행위를 하면서 중국 도서들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 외부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해양안보정세를 평가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종전의 근해방어(offshore water defense) 전략에서 벗어나 근해방어 및 공해보호(open seas protection)의 결합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2015 국방백서는 중국으로서 육지가 해양보다 중요하다는 전통적 관념을 폐기할 것이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현대적 해양군사력 개발, 해양권리 및 이익 보호, 전략적 해양수송로 보호, 국제해양협력 참가를 통해 해양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명언하였다(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2015). 이 같은 국방백서 2015에서 표명된 근해방어 및 공해보호 결합의 해양전략 방침은, 중국 해군이 쿠릴열도, 일본, 타이완, 필리핀,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내에서의 국가이익 방어 뿐 아니라, 소위 제2도련선, 즉 괌(Guam)과 인도네시아 및 그 외곽까지 이어지는 원해에서의 이익보호도 임무로 삼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Heath 2016).

근해방어 및 공해보호의 확대된 해양전략을 표명하면서, 중국 당국은 해양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의 확대 개편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인민해방군은 육군 및 공군 7개 군구, 해군 3개 함대, 그리고 제2포병 등의 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편제가 지나치게 육군 중심적이고,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합동성 강화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1월, 인민해방군에 대한 상부구조 개혁을 지시하였고(Secretary of Defense 2015, 1), 최종 개혁안이 2016년 2월에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육군의 기존 7개 군구가 북부, 남부, 동부, 서부, 그리고 중부의 5개 전구(battle zone command)로 축소, 재편되고, 전구 사령관은 육해공 합동 지휘를 맡으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인민해방군 해군의 북해, 동해, 남해 3개 함대는 동부, 남부 전구와 유기적인 지휘체계 하에 들어가면서 육군 및 공군과의 합동성이 강화되게 되었다(Jiang 2016).

해군과 더불어 해양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해상경비대 관련 조직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3월, 중국 정부는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국가해양국의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기존에는 다수 부서에서 운용되던 해상경비부대들을 일원적으로 통합운용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국가해양국 산하 해양경비함정들은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쳐 50여척의



해상순시선 전력을 증강해 왔으며, 향후에도 100척의 순시선들을 추가로 증강할 계획이다(Cole 2014, 44). 이와 같은 시기에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에 비추어 핵심이익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고(Hua 2013), 국가해양국 국장은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센카쿠 근해에 대해서도 정기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였다(Hao & Guo 201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중국 해군은 종전의 근해방어전략에서 전환하여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가 결합된 전략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이 미국 본토나 태평양 전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나, 동중국해의 센카쿠나 남중국해의 도서들을 핵심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지역들이 각각 미일동맹이나 관련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적용범위라고 밝힌 미국의 역내 전략과 충돌할 수 있는 개연성이 강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해군력 증강

중국 해군의 전략변화는 중국 해군력의 구성 및 규모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해군의 전력은 아직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Shambaugh 2004, 266), 태평양은 미국의 호수에 다름 아니었다고 인식되었다(Friedberg 2011, 217).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은 근해방어 혹은 이보다 더 확장된 원해방어 및 공해보호 등의 전략개념과 병행하여 해군력을 점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표2]는 2006년도 이후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2000년대 중국의 해군전력 보유현황

구분		20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SSBN	Xia	1	1	1	1	1	1	1	1	1	1
	Jin			2	2	2	2	2	3	3	3
SSN	Han	4	4	4	4	4	4	3	3	3	3
	Shang			2	2	2	2	2	2	2	2
SS	Romeo	21	16	9	9	9	9	1			



	Kilo	3	10	12	12	12	12	12	12	12	12
	Song	9	9	10	13	13	16	16	16	16	16
	Ming	19	20	19	19	19	20	20	20	20	20
	Golf	1	1	1	1	1	1	1			
	Yuan		2	2	2	2	4	4	4	4	4
	Yuan II								3		8
	Qing								1	1	1
C V	Liaoning								1	1	1
D D G	Hangzhou	3	3	3	4	4	4	4	4	4	4
	Luyang	2	2	2	2	2	2	2	2	2	2
	Luyang II	2	2	2	2	2	2	2	3	4	5
	Luhai	1	1	1	1	1	1	1	1	1	1
	Luhu	2	2	2	2	2	2	2	2	2	2
	Luzhou		1	2	2	2	2	2	2	2	2
F F G	Jiangkai	2	2	2	2	2	2	2	2	2	2
	Jiangkai II				4	6	7	9	13	15	16
	Jiangwei	14	13	11	11	11	11	9	8	4	4
	Jiangwei II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Jianghu	14	13	11	11	11	11	9	8	2	2
	Jianghu II	10	9	9	9	9	8	8	6	6	6
	Jianghu III	3	3	3	3	3	3	3	3	1	1
	Jianghu IV	1	1	1	1	1	1	1	1	1	1
	Jianghu V		6	6	6	6	6	6	6	6	6
	Luda	13	15	14	13	13	11	11			
	Luda II	2	1	1	1	1	1	1	1	3	2
	Luda III	1	1	1	1	1	1	1	4	4	4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6-2015. 이 표에 나타난 함선 외에 정찰정, 상륙정도 상당수 존재.



이를 보면 중국 해군은 2006년 이후 장카이급 호위함(프리깃, frigate)을 국산 전력화하여, 2015년 현재 17척을 보유하고 있고, 5척을 건조중이다. 루조우급 및 루양급 구축함도 각각 2척 및 5척 보유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고(防衛省防衛研究所 2011, 31), 2014년부터 새롭게 루양-Ⅲ급 구축함이 배치되고 있다.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60여척의 미사일 초계함(missile patrol craft)을 배치했고, 2012년부터 1500톤급 장다오(Jiangdao)급 콜벳함 20여 척을 생산하여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들 함정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상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초계 활동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17).

잠수함 전력은 수상 전력이 강한 미국에 대응하여 중국이 비대칭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진급 전략잠수함, 상(商)급 전술잠수함, 위안(元, Yuan)급 잠수함 전력의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진수되어 2008년 정부터 전력화된 진(晋)급 원자력잠수함(SSBN)에는 사정거리 8000km 이상의 SLBM 쥐량 2(JL-2)가 탑재되었다(防衛省防衛研究所 2011, 30). 같은 시기 진수된 위안(元)급 잠수함 및 상(商)급 원자력 잠수함은 각각 사정거리 40km의 순항미사일 YJ-82를 탑재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청(淸)급 디젤추진형 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는데, 이 잠수함에는 사정거리 8000km의 쥐량 2 미사일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ecretary of Defense 2011, 33). 2015년 현재 중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한 진급 원자력 잠수함 4척, 위안과 상급 핵잠수함 5척, 디젤 공격잠수함 53척 등 총 6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건조계획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는 69-78척으로 증강될 것으로 예상된다(Secretary of Defense 2015, 89).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진급 잠수함을 제외한 대부분 중국 잠수함 전력은 미국 잠수함 전력이 수행하는 대잠전이나 지상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19).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구형 항모를 개조하여 신형 항모 랴오닝으로 개조시켰고, 함재기 J-15의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끝에 2013년 2월, 칭다오 모항에 최초 기항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재래식 항모를 보유한 5번째의 국가가 되었다. 다만 중국 항모는 미국 니미즈급 항모에 비해 비행기 탑재대수도 적고, 항행 기간도 짧고 항모 전단의 전체적인 전력 투사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추가로 국산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하였고, 향후 2척 이상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Sun 2015).

중국 해군의 전력은 수상함, 잠수함, 상륙정 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많은 300척 이상에 달하며(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13), 이들 함정은 각각 북해함대(칭다오, 靑島), 동해함대(닝보, 寧波), 남해함대(잔장, 湛江)에 배치되고 있다. 2015년 현재 3개 함대를 모항으로 하는 중국 해군 전력의 배치 상황은 [표3]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센카쿠(다오위다오)를 관할하는 동해함대와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해함대에 상대적으로 프리깃, 미사일 초계함이나 상륙정 등의 전력이 중점 배분되고 있다.³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진급 잠수함이 남해함대의 하

³ 북해함대에는 핵잠수함 3척, 디젤 잠수함 18척, 구축함 10척, 프리깃함 9척, 상륙용 주정 7척, 미사일 초계함 19척이 배치되어 있고, 동해 및 남해 함대에는 핵잠수함 2척, 디젤 잠수함 30척, 구축함 16척, 프리깃함 44척, 상륙용 주정 44척, 미사일초계함 67척이 배치되어 있다.



난다오(海南島)에 집중 배치된 것은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미국 활동에 대응하여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Cole 2014, 34).

[표3] 2015년 현재 중국 3개 함대의 전력 배치

함대 및 모항	전력 배치 및 규모	
North Sea Fleet(Qingdao)	Nuclear Attack Submarines	3
	Diesel Attack Submarines	25
	Destroyers	8
	Frigates	10
	Amphibious Ships	11
	Missile Patrol Craft	18
	Corvettes	6
East Sea Fleet (Ningbo)	Diesel Attack Submarines	18
	Destroyers	9
	Frigates	22
	Amphibious Ships	20
	Missile Patrol Craft	30
	Corvettes	6
South Sea Fleet (Zhanjiang)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	4
	Nuclear Attack Submarines	2
	Diesel Attack Submarines	16
	Destroyers	9
	Frigates	20
	Amphibious Ships	25
	Missile Patrol Craft	38
	Corvettes	8

출처: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14

잠수함 및 항모를 필두로 하는 해군력 증강 이외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군 및 제2포병의 원거리 타격능력을 강화하여, 제1도련 및 제2도련 해역에서의 해군 전력과 협력하여 타국에 의한 해양통제를 배제하려는 전략도 추구하고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전투기 및 폭격기의 스텔스 기능 강화와 공중급유기 지원을 통한 작전 반경 확대, 위성을 통한 공중 감시 및 정찰기능 강화가 이에 해당된다.⁴ 제2포병은 사정거리 800-1,000 킬로미터에 이르는 단거리 미사일 1,200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정거리 1,500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거리 DF-21D 미사일도 이미 배치하고 있다. DF-21D 미사일은 타이완 및 서태평양 해역에서 접근하는 상대국 함선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제2포병은 사정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탄 DF-5, DF-31, DF-31A를 50-60여기 보유하고 있으며, 새롭게 DF-41을 개발하고 있다(The Secretary of Defense 2015, 8).

중국은 이러한 전력을 합동으로 운용하여 자국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접근하는 상대국의 해군력을 저지하려는 근해방어전략 및 그 외곽 해역에서의 중국 해양권익을 보호하려는 원해호위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Zhang 2015). 예컨대 중국은 루양급 구축함, 콜벳함, 위안급이나 상급 잠수함을 제1도련선에 해당하는 중국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용하면서,

⁴ 2009년 군사퍼레이드 당시 공개된 중국 최초의 항공정찰감시기 Kongjing-2000기의 개발과정에 대해서는 “Expert lifts lid on surveillance aircraft” *China Daily*, January 28, 2013 참조.



이 해역에 대한 미국 등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근해 방어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 해군은 진급 전략핵 잠수함이나 제2포병의 DF-21D 미사일, 항모전단을 동원하여 제2도련을 잇는 원해 지역의 이권 보호를 도모할 수도 있다(Heath 2016). 중국이 구축한 베이더우(北斗) 항법위성체계가 미국 해, 공군 전력에 전개될 경우 이에 관한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같은 정보들이 제2포병 및 3개 함대에 속한 중국 해군에 전달되면서, DF-21D 대함 탄도미사일로 미국 해군 전력의 접근을 저지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공격잠수함 전력으로 아태지역 미군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Friedberg 2011, 217-222). 미국 일각에서 중국이 해양거부(sea denial)의 목표를 갖고 미국 항모집단이 아시아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anti-access)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Kaplan 2007; Secretary of Defense 2011, 25; Wang 2012).

3) 해군력 운용 확대

중국은 근해방어 및 원해보호 병행 전략으로의 변화 속에 해군력을 근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1도련선 이내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나아가 원해에 해당하는 제2도련선 외곽의 인도양과 서태평양 상에 전개하여 수시로 군사훈련을 행하면서 전력투사능력을 보이고 있다(Wu 2012).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받아내었고, 2011년 8월에는 해군 함정들이 원산을 친선방문하기도 하였다(朝日新聞 2011; 중앙일보 2011). 2012년 4-5월과 2013년 8월에는 황해와 산둥반도 해상에서 러시아 해군과 조인트 시(Joint Sea) 2012 및 2013의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Chang 2013). 2013년 10월부터 11월 초순에 걸쳐 중국 해군은 우승리 해군사령관의 직접 지휘 하에 북해, 동해, 남해 함대의 함정과 비행기들이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 동측 해역, 즉 서태평양 해역에서 대규모 함대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朝日新聞 2013; *Global Times* 2013). 2015년 8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양국 함정 25척, 헬기 8대, 해병 400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Joint Sea 2015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서 양국은 해상교통 연합 보호, 연합상륙작전 훈련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Yi, 2015). 2013년 11월24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조치도 제1도련선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양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은 필리핀 인근 공해상에도 해상 항행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해군 함선이 2012년에 7회, 2013년에는 9회 필리핀 상에 항행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최초로 북해, 동해, 남해 3개 함대 함정이 필리핀 공해 상에 집결하여 대규모 기동훈련을 행하기도 하였다(Intelligence 2015, 28).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해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월 중국 남해함대 소속 3척의 함정들은 서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해상에서 순항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Global Times* 2014). 중국은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Bautista and Amador III 2013).

이안 모리스(Ian Morris)는 뉴욕타임스 서평을 통해, 미국이 19세기 후반 카리브해 해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였듯이, 현재의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 해군을 대체하여 지배세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Morris 2014). 그리고 냉전기 구소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대해서 그러



했듯이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해군력 확장을 통해 연안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핀란드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넘어 원해의 범주에 해당하는 인도양, 지중해, 서태평양 외곽 해역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12년 12월13일, 중국 동해함대 사령관 수 지기안(苏支前, Su Zhigian)은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Galle Dialogue)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해군이 인도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Global Times 2012). 중국은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등과 협정을 맺어 이들 국가들의 해군기지 건설을 담당하거나, 경제원조를 행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Wong 2010). 2014년도에는 잠수함 2척이 인도양에 최초로 파견되었다(Cole 2014, 41).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함정은 2009년 이후 소말리아에 파견되어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 8월부터는 병원선을 아시아,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2013년과 14년에는 시리아 화학무기 물질 제거를 위해 프리깃함이 중동지역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소말리아 해상에 파견된 중국 함정들은 지중해 상에까지 진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5월, 중국 해군은 러시아 해군과 연합으로 지중해에서 최초의 해군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소말리아 해상에 파견된 중국 초계정들이 참가한 것이다(Perlez 2015; Wong 2015).

중국 해군은 태평양 상에서의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북해함대 소속 3척의 함선 전대가 최초로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기항하였다. 2014년에는 하와이에서 미국 태평양함대 주최로 개최된 림팩(RIMPAC) 훈련에 최초로 4척으로 구성된 중국 함대가 참가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3개 함대로 구성된 중국 해군 전력들이 서태평양 상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9월에는 러시아와의 연합해군훈련을 마친 중국 함정 3척이 미국 영토인 알류산 열도의 12해리 이내 영해를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으로 통과하여 태평양 상으로 회항하기도 하였다(The Washington Post 2015; 朝日新聞 2015).

향후에도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 뿐만 아니라 중부 및 동부 태평양 상에서도 훈련 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29-30). 중국 해군의 활동 확대에 따라 중국은, 미국이 인도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나 대서양의 아조레스(Azores)와 같이 함대에 대한 중간 기항과 보급, 항공엄호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 전진 기지를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여타 국가들과 항만건설 및 기지제공 등의 외교 협력을 추진하거나, 남중국해 등에서의 인공기지 건설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우디 섬(Woody Island, 중국명 永兴岛, Yongxing Island)에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거나(Forsythe 2016),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 美济礁)를 인공섬으로 확장하거나, 스프래틀리 군도의 Fiery Cross Reef(永暑岛)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의 움직임은 이와 관련된다(Perlez 2015; Sanger & Gladstone 2015).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행위가 당연한 주권행사이며, 오히려 미국이 이 해역을 군사화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Global Times 2016).



2.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아태지역 해군력 전개

1) 아태지역 해양전략의 적극화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사실상 전승국의 지위에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군력 확장을 시도하지 않고, 일본에게 남태평양 도서에 대한 위임통치를 허용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일본 제국해군의 팽창을 가져오고, 결국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 해군에 의해 진주만 기습을 당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 때문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대서양 지역은 물론, 태평양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위협요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병력의 전진배치 태세를 구축하고, 제3함대(모항: 샌디에이고)와 제7함대(모항: 요코스카)로 구성된 태평양함대도 설치하게 되었다(Friedman 2007).

냉전기 소련 해군의 태평양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확장되었던 미 해군의 전력규모는 1990년대 걸프전쟁 이후 축소 경향을 보여왔다. 냉전기 총 526척에 달했던 함정수는 걸프전쟁을 거치면서 삭감되기 시작해 2000년도에는 318척 수준으로 축소되었다(樋渡由美 2012, 56). 그러나 축소된 해군전력 만으로도 미국의 해군력은 타국을 압도하였다. 200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베리 포젠(Barry Posen)은 미국이 해양, 우주, 항공 등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의 영역에서 타국을 압도하는 통제능력을 갖고 있으며, 핵공격잠수함, 항모,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해군력의 분야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 도전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바 있다(Posen 2003, 20). 아태지역에서도 미국의 해양력 우위는 독보적이어서, 태평양은 사실상 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호수가 되었으며, 미국은 위성의 정보 제공 속에서 해, 공군이 별다른 위협 없이 정기적인 배치와 초계항행 및 비행 등을 실시할 수 있었다(Friedberg 2011, 217).

그러나 해양에서의 글로벌 통제를 자신하던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경향을 노정하게 되었다. 2007년 9월, 로버트 캐플란(Robert D.Kaplan)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해상거부 전략의 구체화로 태평양을 호수처럼 지배해온 미국의 우위가 상실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Kaplan 2007). 아태 지역에서의 대중 경계감의 고조 속에 미국 해군도 직접 중국위협요인을 염두에 둔 대응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2009년 9월, 로버트 게이트스(Robert Gates) 국방장관은 게리 러프헤드(Gary Roughead) 미 해군참모총장과 노튼 슈워츠 미 공군참모총장 등과 회합을 갖고, 중국이 소위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발전시킨다는 논의를 하였다. “공해전투”(Air-Sea Battle)란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되는 군사력, 특히 해양 및 항공의 전투력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대요인을 격퇴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세력 투사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재엽 2012, 190).

2012년 2월, 그리너트(Jonathan Greenert) 해군참모총장과 슈워츠(Norton Schwartz) 공군참모총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공해전투” 개념은 중국이 DF-21D 장거리 대함탄도미사일, DH-10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려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사실을 미국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은 전력투사능력을 확보하고, 침략자를 패퇴시키기 위해 해군과 공군이 협력하여, 글로벌 호크, 해상정찰 항공기, F-35 등의 무기체계를 통합하고 네트워크화하여 중심공격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chwartz 2012).

한편 ASB 개념의 공동발안자이기도 한 해군참모총장 조너선 그리너트 제독은 2012년 하반기에 발표한 다른 글을 통해, 미국 해군으로서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근해 공격을 억제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방작전’(operating forward)의 전략태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Greenert 2012). 즉 미 해군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파나마 운하, 소말리아 해상 같은 전략적 교차점에 해군 전력을 주둔시키면서, 작전과 관리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반접근 지역 거부를 의도하는 잠재적 적대세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일본, 한국,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영국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 영토 내에 소재한 해외기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방전개 해군력 배치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 해군 및 공군에 의해 ‘공해전투’(Air-Sea Battle)개념이 강력하게 추진되자, 다른 전략가들은 상대적으로 미 해병대와 육군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안적인 전략론도 제시하게 되었다. 2004년 이라크 전쟁 수행 중에 “제4세대 전쟁론”을 제기하여, 림스펠트 국방장관의 침단전쟁 수행 전략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던 해병대 대령 출신인 햄즈(T.X.Hammes)는 “공해전투”개념에 따른 경우 중국을 패퇴시키기 위해 중국의 공역이나 해역 등으로 직접 침투하여 비핵 전역을 벌이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중심이 깊은 중국측에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 햄즈는 중국측이 설정한 제1도련의 해역과 공역을 오히려 미국이 장악하고, 잠수함 전력을 운용하여 중국의 제1도련 영역 사용을 거부하는 “근해통제”(offshore control)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Hammes 2012). 공해전투 개념 개발에 관여하였던 크레피네비치(Andrew F. Krepinevich)도 중국이 A2AD 능력을 강화하면서 제1도련선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항하여 미국이 제1도련선을 따라 지상군 전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대함 미사일 배치나 기뢰부설 등을 통한 열도방어(archipelagic defense)전략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Krepinevich, Jr. 2015).

이러한 제언을 반영하여 미국 정책 당국은 해, 공군 뿐 아니라 지상군, 사이버 능력, 핵전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대중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국방성이 공표한 신국방전략지침은 중국과 이란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전력투사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전자 및 사이버 전쟁,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방공체제와 기뢰 등 비대칭적 능력으로 A2A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 잠수함 전력, 신형 스텔스 전폭기, 미사일 방어체제, 우주기반능력을 결합한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 Access Concept: JOAC)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Department of Defense 2012). JOAC 개념에 따르면 공해전투 개념은 그 하위개념으로 된다는 것이다. 2013년 미 국방성이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관련 보고서는 해, 공군 전력 증강 이외에 중국의 사이버 능력 강화와 미국에 대한 사이버 도발 증대 현황을 분석하면서, 향후 중국이 전자전 능력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하여, 미국을 태평양 상의 제2도련 외곽으로 밀어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Sanger 2013). 국방성이 2014년 공표한 4년 주기 국방태세 보고서(QDR 2014)는 우월한 전력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핵공격 억



제 능력 및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2020년까지 미 해군자산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주둔시키고, 일본내 미 제7함대 자산을 증대시키며, 싱가포르에 대한 연안전투함(LCS)을 순회배치시키고,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 종료에 따라 병력들 다수를 아태지역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A2AD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F-35 전투기, 장거리 타격능력, 정찰전력, 수중전력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다(Department of Defense 2014).

국방성이 2015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 아태지역 해양전략서 2015(Asia-Pacific Maritime Strategy 2015)는 중국이 300척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군전력과 급속도로 현대화된 해상법 강제능력을 기반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스스로의 군사능력을 증강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해양능력 건설을 지원하여 해양자유를 확보하고, 분쟁과 강압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전략서는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남중국해 관련 국가분쟁은 외교나 중재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Department of Defense 2015, 1-19).

한편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는 2016년 미 의회의 위촉을 받아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리벨런싱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국의 아태지역 해양전략에 대해 할애했다. 이 보고서는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역내 이익에 가장 중대한 도전(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이 우주, 사이버, 대양해군, 공군, C4ISR을 망라한 A2AD 능력에 대해 투자하면서, 미국 및 역내 동맹국들의 행동자유를 거부하고, 국제수역 및 공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종전에 발전되어오던 공-해전(Air-Sea Defense) 개념,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계승하여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합동접근 및 작전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을 개발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이 개념에 따른 전력증강과 합동훈련 등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핵전력, 공군전력, 사이버 전력 등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해군력은 대수상전, 대잠전, 상륙작전, 특수작전 능력 강화를 견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CSIS 2016, 116).

미국의 대중 군사전략을 실제 실행하는 부서는 아태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태평양사령부이다.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은 2016년 2월2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행해진 청문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동기는 지역통제(regional control)에 있으며, 미국은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적 수단에 의해 아태지역에 대해 리벨런싱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그는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이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으로서도 제한된 군사예산 속에서도 비대칭전력으로서의 잠수함 능력 증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전략가들은 중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근해방어 및 공해보호 병행전략을 “지역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접근 지역거부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⁵ 2016년 2월23일, 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제독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 참조. 중국 언론은 해리스 제독의 발언과 정책들이 미국의 패파정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Global Times March/4/2016).



전략으로서 ‘공해전투’(ASB),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그리고 ‘근해통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해양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 해군력의 전력투사에 대한 억제태세 강화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면적인 공격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만 초기 공해전(Air-Sea Battle) 전략에서 제시되었듯이, 미-중 양국 간에 우발적인 사태에 의한 교전이 전개되었을 경우에는 중국 내륙에 대한 공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아태지역 해군력 전개 태세 변화

그렇다면 2010년 전후하여 본격화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의 ‘ASB’ 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미국 해군력 배치 및 규모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표 4] 미국 해군의 전력 변화 추이, 2006-2015

구분		20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SSBN	Ohio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SSGN	Ohio	4	4	4	4	4	4	4	4	4	4
	LA	30	26	24	23	23	23	23	23	30	30
	Virginia	1	2	3	4	5	7	8	9	10	11
SSN	LA	20	23	23	23	22	20	19	19	11	11
	Sea-wolf	3	3	3	3	3	3	3	3	3	3
CV	Nimitz	8	9	9	9	10	10	10	10	10	10
	Enterprise	1	1	1	1	1	1	1	1		
	Kittyhawk	1	1	1	1						
	J.F.Kennedy	1	1								
CG	Triconderoga	25	22	22	22	22	22	22	22	22	22
DDG	Arleigh Burke I / II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Arleigh Burke II A	19	22	24	24	28	31	33	34	34	34
FFG	Oliver Hazard Perry	30	30	22	22	21	20	18	14	13	7
LCS	Freedom			1	1	1	1	1	2	2	2
	Independence					1	1	1	1	1	2
Total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6-2015, 정찰(Patrol), 보급(Logistics), 지휘부(Commandership) 등은 제외



[표4]는 태평양에 배치된 제3함대와 7함대는 물론 대서양 방면의 제2함대, 카리브 해의 제4함대, 지중해의 제6함대, 홍해의 제5함대 등을 망라한 미 주요 해군전력이 2001-2013년간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4>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미 해군의 잠수함, 항모, 순양함, 구축함 등 전체 해군 자산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전력 삭감 추세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방면의 해군전력은 예외적으로 현상유지 혹은 소폭 증강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제3함대(샌디에이고)와 제7함대(요코스카)로 구성되고, 기지별 보유전력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5] 아태지역 미 해군 함정 기지별 보유 현황

주요 기지	함정(2016년 현재)	총 함정수	추가 배치 예정
요코스카 사세보	CVN 1 amphibs 8 CGs 3 DDGs 8 MCMs 4	24	2016년, USS Lassen->USS Barry 교대 이지스함 2척 추가배치 2020년까지 USS America 배치 *싱가포르 LCS 4 순환 배치 예정
괌	AS 1 SSN 4	5	로스엔젤레스급 핵공격잠수함 SSN 4척
펄하버	CGs 2 DDG 9 SSNs 18	29	스텔스구축함 DDG-1000, 3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SSN 2척 추가 건조
샌디에이고 Kitsap- Bremerton Everett	CVN 2 Amphibious 12 CG 6 DDG 17 LCS 6 MCM 3 SSN 6 SSBN 8 SSGN 2	62	2016년 항모 제럴드 포드, 샌디에이고 배치 예정

출처: CSIS 2015, 34-35; Department of Defense 2015, 20-23.

이 표에 의하면 2016년 현재 미 해군은 하와이, 요코스카, 사세보, 괌 등 제 7함대에 총 58척, 샌디에이고 등 제3함대에 62척 등 태평양 전 해역에 120척의 함선을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항공모함은 미 해군 전체 11척 가운데 총 4척이 각각 요코스카, 샌디에이고, 브레머튼, 에버레트 등을 모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CSIS 보고서는 리벨런싱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취역 예정인 니미즈급 항모 제럴드 포드를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CSIS Report 2016, 129). 잠수함은 미 해군 전체 72척 잠수함 가운데 38척이 괌, 펄하버(진주만), 샌디에이고 등을 모항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미 해군은 로스엔젤레스급 공격잠수함(SSN) 4척을 괌에 추가 배치하고, 버지니아급 잠수함(SSN) 2척을 신규 건조하여 하와이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해군의 순양함과 구축함 총 84척 가운데 45척이 태평양 방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16척에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제가 탑재되어 있고, 상당수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은 향후에도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일본에 배치하고, 스텔스 구축함을 하와이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해함(MCM)은 7척이 각각 사세보(佐世保)와 샌디에이고에 배치되어 기뢰발견 및 파괴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이 부분을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존하고 있다. 태평양 방면에 배치된 상륙함은 전체 20척이고, 이 가운데 8척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있지만, 태평양 방면 해군 전력은 리밸런싱 전략 및 해군력 강화 전략의 방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강의 방침이 표명된 바 있다. 미국 해군은 현재 총 272척 함정을 2028년까지 321척으로 증강할 예정에 있고(CSIS 2016, 126), QDR 2014는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폭이긴 하지만 태평양 방면 미 해군 전력의 증강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해군 전력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수집 및 공중전력도 태평양 방면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향후 획득될 395대의 F-35 전투기 가운데 상당수를 아태지역에 배치할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최초로 F-35기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성은 해군의 정보수집능력 강화를 위해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통제기 24대를 획득하였고, 향후 4년간 획득될 47대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의 상당수도 아태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괌 앤더슨 기지에는 2017년까지 무인비행시스템 MQ-4C 트리톤을 배치할 예정이고, 마리아나 제도에는 훈련기지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DoD 2015, 20-23). 호주 북부 다윈 기지에는 2011년 11월, 미국-호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500인 규모의 해병대 부대가 이미 전개되어 있다.

3) 아태지역 미국 해군력 운용

국방예산 삭감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 소폭 증강되고 있는 미국 해군력은 주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자유항행작전(Freedom of Navigation)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존재감을 보이거나, 혹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해군훈련 실시를 통해 해양질서 안정 및 역내 국가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유항행작전은 주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방면에 대한 중국의 해양전력 투사로 인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정보수집을 하거나 실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해역과 공역이 실상은 국제법상 지구적 공유재(global common)에 속한다고 보고, 군사적 통행과 정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자유항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15년 5월13일, 싱가포르에 순환배치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이 중국이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남사군도에 대한 정찰항행을 실시하였다(朝日新聞 2015). 2015년 10월17일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 라센(Lassen)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는 남사제도 스비 환초(Subi Reef, 중국명 주비자오, 渚碧礁)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자유항행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에는 미군의 대잠 초계기 P-8A와 P-3도 같이 투입되었다(朝日新聞 2015; 조선일보 2015). 2015년 11월12일에는 괌 기지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 난사 군도 근처 인공섬 주비자오 상공의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였다(중앙일보 2015). 각각의 작전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이 뒤따랐지만, 미국은 국제공역과 수역에서 미국은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고, 남중국해도 예외는 아니라고 반박하였다(Chen 2015). 2016년 2월16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항행 자유 작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태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정례적인 연합해군훈련을 수행하면서, 역내 안정과 안보공약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DoD 2015, 23-25). 한국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Foal Eagle) 훈련은 애초 특수작전부대 대응에 더해 상륙작전과 대잠 전투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도 신카메(Shin Kame) 대잠 훈련을 실시하여 디젤 잠수함에 대응하는 능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미 해병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자위대와 괌 및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상륙작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센카쿠 등 도서지역 방위 능력을 증진하고 있다.

남중국해 방면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간 해군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해상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28일, 아키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필리핀의 해상방위, 군사능력 향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1990년대 이래 철수했던 필리핀 군 시설을 미군이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맺었다(朝日新聞 2013). 또한 필리핀과 정례적으로 실시해오던 바리카탄(Balikatan) 훈련에 해양방어훈련을 포함하였고, 일본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참가시키는 등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2015년 4월에 실시한 미국-필리핀 연합군사훈련은 중국령 황옌다오(黃岩島)에서 200여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예년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실시하여, 중국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Global Times 2015).

미국은 한때 적대적이었던 베트남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연합해군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베트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하였고, 2011년에는 방위협력에 관한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은 2011년 7월, 다낭 해상에서 연례 해군훈련을 실시한 이래 점차 훈련 규모를 확대하여 2015년 3월에는 5일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Ross 2012, 78).

싱가포르와는 2013년 봄부터 연안전투함(LCS)을 10개월 단위로 배치시키면서, 중국 등 여타 해군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태국과도 연례적으로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안보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2015년 4월, 해상초계훈련 및 도상 대잠훈련을 실시하였고, 말레이시아와도 2015년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대양주 지역의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와도 안보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다윈에 미 해병대 250명이 배치되었고, 2016년까지 총 2500명의 해병대가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Bumiller, 2012). 1990년대 초반 미국과의 동맹조약에서 이탈했던 뉴질랜드와도 방위협력관계를 회복하였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다자간 해군훈련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인도 및 일본을 포함한 말라바 해상훈련을 일본 서측 해역에서 실시한 바 있고, 2011년 7월에는 일본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브루나이 해상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朝日新聞 2011). 2014년 11월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연합으로 해군훈련을 실시하였다(朝日新聞 2015). 2014년 7월에 이어 2015년 10월에도 미국과 인도가 주최하는 말라바(Malabar) 해군 훈련에 일본이 공동으로 참가하였다(Lu 2015).



아태 지역에서 태평양사령부 주관으로 1971년 이래 최대 규모로 실시해온 RIMPAC 훈련도 확대되고 있다. 2014년 훈련에는 22개국에서 49척의 수상함정, 6척의 잠수함, 200대 항공기, 2만5천명 병력이 참가하여, 하와이 도서와 남캘리포니아일대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4년도 훈련에는 중국이 최초로 참가하여 다자간 해양신평구축을 도모하는 계기로도 되었다(DoD 2015, 25).⁶

3. 미-중 간 해양분쟁 가능성 전망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별 국가의 군사전략이 공세적이거나, 배치된 무기가 공격우위의 경향을 보일 때, 국가간 분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Van Evera 1998, 5-43; Van Evera 199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아태지역 해양을 무대로 1980년대에 근해방어전략을 표방하다가 2000년대 이후 근해방어 및 원해보호전략으로 해양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10년대 이후 아태지역에 대한 리벨런싱 전략을 표명하면서, 군사적으로는 공-해전(Air-Sea Battle), 혹은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근해방어+원해보호 전략, 미국의 Air-Sea Battle이나 JOAC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이나 일본이 추구했던 선제공격적 군사전략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억제 및 방어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양측 전략 모두 상대방이 공격적 경향을 취할 때, 즉각적 반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군사력의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공세전략으로 전환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더욱이 중국 해양전략이 지속적으로 지리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고, 미국도 아태지역에 대한 리벨런싱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향이기에 때문에, 향후 양측의 전략적 대립 및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6]은 중국과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주요 해군력 총계 및 주요 운용실태를 비교한 것이다. 이 비교를 보면 미국은 항모 및 순양함, 구축함 등 주요 수상함 전력에서 앞서 있으나, 중국은 수중 세력인 잠수함 전력과 상륙정 전력에서 양적으로 앞서 있다(Olson 2015).⁷ 다만 미국이 국방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중국이 현재 추세대로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향후 15년 내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잠식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중국 해군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상당 수역을 자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북해, 동해, 남해함대 등 3개 함대 합동훈련의 빈도를 늘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해상 및 남중국해의 상당 해역을 공해로 보고, 제7함대 함선에 의한 자유항행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대국의 영해 범위에 대한 공동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해군 전력 및 이를 지원하는 공군 전력의 운용 확대가 이어진다면, 양측간 우발적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⁸

⁶ 미국은 2016년 RIMPAC에도 중국을 초청해 놓은 상태이다.

⁷ 중국 잠수함들은 상당수가 노후화되었다고 평가되었으나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 추진 결과 2015년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이 37척으로 늘어나, 미국 수상함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증강되었다.

⁸ 미국이 수행하는 항행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이 중국과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중국측 여론에 대해서는 *Global Times*(March/10/2016) 참조.



[표 6] 중국과 미국의 아태지역 해양전개 주요 해군력 및 운용 비교

중국(주요 해군력 총계 및 주요 운용)	미국 (해군력 배치/주요 운용)
<p>주요 전력 총계</p> <p>함모 1</p> <p>구축함 26</p> <p>잠수함 68</p> <p>상륙정 56</p> <p>(북해, 동해, 남해함대 종합)</p>	<p>주요 전력 총계</p> <p>함모 4</p> <p>순양함 11</p> <p>구축함 34</p> <p>잠수함 38</p> <p>상륙정 20</p> <p>(요코스카, 사세보, 괌, 하와이, 샌디에이고, 에버레트, 키트삼 브레머튼 기지 종합)</p>
<p>주요 운용</p> <p>동중국해 중러 연합해군훈련</p> <p>필리핀 해상 3개 함대 합동훈련</p> <p>남중국해 항행</p> <p>서태평양 및 인도양 방면 훈련 증가</p>	<p>주요 운용</p> <p>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자유항행작전</p> <p>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양자간 해군훈련</p> <p>다자간 해군훈련 확대</p>

2015년도 미 국방성 보고서는 미국이 전세계 해역에서 2013년도에는 19건의 해양분쟁에 직면하였고, 2014년에는 35건으로 증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 19건이 태평양 사령부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DoD 2015, 24).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간 해양전략의 적극화, 그에 따른 해군 운용의 확대에 따라 우발적 해상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우발적 해양충돌은 동중국해의 센카쿠와 타이완을 둘러싼 분쟁, 필리핀 해상, 그리고 남중국해 해상에서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2015년 5월, 싱가포르에 순환 배치된 미국 연안전투함(LSC)이 중국 남사군도 해역에 대한 정찰항행을 실시하였을 때, 중국 해군 함정과 조우하였고, 중국 프리깃함이 미국 함선에 대한 추적 항행을 실시하였다. (朝日新聞, 2015/5/15) 2015년 10월27일에는 미 제7함대 소속 구축함 라센이 중국이 인공섬을 준설하던 남중국해 수비환초(Zhubi Reef) 12해리 이내에 대한 항행자유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도 2척의 구축함 란저우와 타이저우를 파견하여 견제하였다(Chen 2015). 2016년 1월 말에는 미 해군 구축함 Curtis Wilber 함이 중국이 영유권 주장해온 남중국해 서사군도의 트라이튼 섬(Triton Island, 중국명 中建島, Zhongjian Island) 12해리 이내 해역에 대한 항행을 단행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이 맹반발하는 사태도 전개되었다(Global Times 2016).

동중국해 해상에서의 미-중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상존한다. 2015년 9월15일, 중국 산둥반도 동쪽 130킬로미터 해상의 황해 공역을 비행 중이던 미국 정찰기 RC-135에 대해 중국 측이 JH-7 공격기 2기를 접근시켜서 방해 비행을 실시한 사례가 그 하나이다. (朝日新聞, 2015/9/24)

미국과 중국이 쌍방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Pillsbury 2015, 146). 다만 양측의 국가이익과 동맹국에 대한 공약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그 충돌이 한국 등의 국가이익과 활동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는 한국이나 일본, 타이완,



필리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교역로이며, 대외경제 및 외교활동의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이 같은 해역에서 미-중 양국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미-중 양국뿐 아니라 지역 내 국가 전체의 공동손실이기도 하다. 우발적 충돌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 기구의 현황과 가능성을 다음 장에서 검토하는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IV. 아태지역 해양 안보규범과 제도의 전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는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 상호 간에 신뢰구축을 위한 규범과 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몇 가지 역사적 사례들은 국제규범과 제도의 발달이 국가간 분쟁 예방에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예시한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승전국들은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워싱턴과 런던 해군 군축조약을 체결하여 국제평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1930년대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워싱턴과 런던 군축회의를 각각 이탈한 것이 태평양 전쟁 발발의 구조적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글로벌 범위에 걸친 군사대결의 구도를 유지했으나, 각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지속했고, 1963년 제한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을 위시하여, NPT, CTBT, SALT 등 양자간 군비통제조약에 공동서명한 것이 양자간 분쟁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안전보장 분야에서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합의하고 있는 규범과 제도의 양상은 어떠하며,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1. 미-중간 해양안보규범과 제도의 모색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양자간 군사협력 및 규범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013년 6월8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신형대국관계” 수립의 원칙이 합의된 이후, 미국측 수잔 라이스(Susan E. Rice) 국가안보보좌관은 2013년 11월, 조지타운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과 새로운 모델의 대국관계를 건설해 나가면 서, 불가피한 경쟁을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겹치는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에 공표된 미 국방성의 아태지역 해양안보전략서도 중국과의 경쟁 및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양자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익이 중첩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며, 위기 감소 조치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DoD 2015, 29).

중국측도 이 같은 양자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2015년 5월에 공표된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동안보, 포괄적 안보, 협력적 안보 개념을 추구하기 위해 주요 국가와의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미국과도 국방대화와 협력, 신뢰구축조치, 나아가 다자간 안보대화 참가 등을 통해 신형군사관계(new model of military relationship)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명언하였다(The State Council of Information Office 2015). 2015년 8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해상분쟁 방지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규칙과 기제를 통한 갈등관리의 방침을 언명하였다.⁹

이 같은 양측 지도층의 방침 속에 미-중 양국은 상호 안보대화 및 공동규범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전후에 미-중 양국은 Senior Dialogue와 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개시하였으며, 이 같은 대화 채널은 2006년 전후하여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로 통합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고급 군 지휘관들의 상호방문이나 협의, 군부대 간의 공동훈련도 확대하면서 신뢰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 9월, 양국은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대책 연합훈련을 실시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참가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연합 인도지원 및 재난구조훈련이 실시되었다(*Global Times* 2013). 그리고 2014년 미국 태평양함대 주관으로 개최된 환태평양 연합해군훈련(RIMPAC)에 중국 해군이 최초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2015년 11월에도 플로리다를 방문한 중국 함선이 미 해군과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였고, 같은 시기 중국 상하이로 방문한 미국 구축함 스테뎀(USS Stethem)이 중국 해군과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Copp 2015; 《朝日新聞》2015/11/20).

양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4월8일,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안(常万全, Chang Wanquan)과 회담을 갖고 양측이 신형군사관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주요 군사행위에 관해 상호 통지하는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Hagel & Chang 2014). 특히 이 회담에서 양국 군과 군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대화를 제도화할 것에 합의하였고, 그 일환으로 양측 해군과 공군의 안전행위 규정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2014년 11월, 미-중 양국은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해양에서 양측 항공기와 함선에 의한 충돌 회피를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에 서명하였다. 이어 2015년 9월에는 양국 공군기의 공중 충돌 회피에 관한 행동원칙이 합의되었다(Lander 2014). 이 일련의 문서들은 양측의 공군기와 함선들이 해양과 공중에서 조우했을 때, 상호 오해와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절차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¹⁰

미국과 중국은 다자간 레벨에서의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기구와 규범 창출에도 참가하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90년대 들어 NPT(1992), 미사일 기술 통제 رژیم(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1992), 화학무기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1993),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Ban Treaty, CTBT, 1996) 등 주요 국제안보기구에 가입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90년대 초반 아태지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아시아 지역 포럼(ARF),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플러스(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Plus)에도 참가하면서, 2010년대 전후 이 기구들에 적극 가입한 미국과 더불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내 다자간 안보기구들은 아태지역 해양안보와 협력을 위한 쟁점 논의 및 협력 창출

⁹ 중국 외교부의 2015년 8월3일 성명 참조.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5-07/7179258.html>.

¹⁰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the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November 10, 2014).



의 무대가 되고 있다. 예컨대 2014년 4월22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0여 개국의 해군 대표단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협정(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CUES)을 승인하였다(Ramzy and Buckley 2014). 이 협정에 따라 참가국들은 해군함정과 공군기들의 조우 시에 개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운용과 신호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현장 지휘관들에게 개입의 사고를 회피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의 해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분쟁 격화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미 국방성은 이 협정의 체결 이후인 2014년 7월, 미 해군 함정이 중국 해군 함정과 예상치 않은 조우를 했을 때 이 협정을 처음으로 활용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활용하여 양국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DoD 2015, 30). 또한 2015년 11월에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역내 해양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Statement on Enhancing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단, 이 같은 미-중 양국의 양자 대화와, 다자적 안보기구에서의 참여가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해양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Friedberg 2011, 53). 이하에서는 이 같은 한계점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2. 기존 해양안보규범과 제도의 한계

국제해양질서와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규범은 1982년 공포된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총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연안국은 영해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territorial sea)로, 24해리까지를 접속수역으로, 그리고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육지에서 연장되는 350해리까지의 해역은 대륙붕으로서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은 주요 국가들이 아직 비준을 안하고 있고, 설령 비준을 했더라도 관련 국가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중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한국, 일본, 중국은 1996년 이를 비준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록 1994년 클린턴 정부가 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비준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비준 실패가 미-중간 해양 갈등에서 미국의 협상력과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Johnson 2016; Kayyem 2012 참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국가들 간에도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적절치 않다.

국제중재재판이나 국제해사재판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장치이고 이들 재판의 판결에 따라 분쟁 당사국 간 해상 영유권 문제가 해결된 몇 가지 선례가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국제재판 소송에 불응하거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2012년 필리핀이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사안을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였으나, 중국이 재판 자체에 임하는 것을 거부하여, 설령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International New York Times 2014).



국제 및 역내기구에서의 공동규범 창출이나 양국간 합의의 축적이 해양안보질서를 위해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경우 이미 국가간 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2002년에 “남중국해에 있어 관계국의 행동에 관한 선언”(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COP-SCS)에 합의하였다. 2008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정상 회담의 공동선언을 통해 동중국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공동선언과 합의들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양질서에 관한 국가간 합의들의 구속력을 높이고 관련국가의 의지에 의해 실행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V. 맺는 말: 동아시아 해양질서 안정을 위한 중견국 외교의 과제

이상에서 2010년대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아태지역 해양전략경쟁을 양측의 대외전략, 해양전략 및 해군력 전개태세, 그리고 규범과 제도의 구속력 여하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장차 아태지역 해양 질서 내에서 상호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상들이 전개된다면 미-중 간에는 안정적 관계가 전개될 것이다.

- 1) 미-중 양국이 국가전략적 측면에서는 각각 관여정책(engagement)과 평화발전 전략을 추구하면서, 현상유지적 성격의 대외전략을 고수할 경우.
- 2) 미-중 양국이 군사적으로는 리밸런싱 전략 및 근해방어 및 원해보호 병행 전략을 추구하면서, 상호 공격적이지 아니라 방어전략의 성격을 유지할 경우.
- 3) 미-중 양국이 해양관련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안보대화를 지속하면서, 공동의 해양안보규범 창출과 제도 형성에 노력할 경우.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부정적 상황들이 전개된다면 양국간 관계는 상호 대립 및 갈등관계가 전개되고, 우발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1) 미-중 양국 내에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밸런싱 정책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상대방 모델을 대체하여 전략적 경쟁을 전개하려는 전략가들이 정책 전면에 등장하여 현상변경적 전략을 대외전략으로 추구할 때.
- 2) 미-중 양국이 보다 공격적 군사전략을 추구하면서 아태 지역 해양에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등 공격적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때. 그리고 미국이 Air-Sea Battle 전략 및 자유 항행작전을 보다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잠수함 및 항모세력을 전진배치하거나, 중국이 원해보호 전략을 확대하고, DF-21D 등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상 차단 등의 작전을 실시할 경우.
- 3) 미-중 양국이 합의한 우발적 해상충돌 방지 규범이 준수되지 못하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양측 군사력 간에 우발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 4) 이외에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중국과 우발적 충돌에 휘말리면서,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지원 의무 속에 관여하게 될 경우.

만일 이상에서 제시한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미-중 양국간에 해양분쟁이 발발하고, 확대된다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경제활동이나 국가이익 측면에서 활용해온 동아시아 여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인 한국, 일본, 필리핀,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아가 인도 및 호주 등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아태지역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로서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속에서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나름의 분쟁을 완화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태지역 국가들 간에는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은 미국과의 동맹 및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 측의 대중 밸런싱 정책에 편승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¹ 반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은 미국 및 중국과의 사이에 균형적인 입장을 견지하려 노력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판단과 이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안보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그 영향력을 활용하고, 경제적 교류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때문에 한국은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 및 파트너 관계 속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 해역에서의 항행자유 및 국제규범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름의 공동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는 한국의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에 이 해역의 안정과 항행자유 보장은 한국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동시에 북한문제 해결 및 양자간 경제관계 측면에서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가 미-중 양국간 관계의 악화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중 양국간 역내 해양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자간 차원에서 기울일 필요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이 종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2015년 중반 이후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관련 장관들이 항행의 자유 보장, 국제규범에 의한 질서 유지 등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¹² 한국은 향후에도 남중

¹¹ 2015년 11월19일, 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의 필리핀 정상회담 및 11월3일, 나카타니 방위상과 카터 국방장관의 말레이시아 회담 내용 참조. 《朝日新聞》 2015년 11월4일 및 11월20일 참조. 2016년 3월,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으로 실시한 바리카탕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선을 파견한 사례에 대해서는 Johnson(2016) 참조.

¹² 2015년 11월22일, EAS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이나 2015년 10월21일, 윤병세 외교장관의 EAI 컨퍼런스 기조연설, 2015년 11월2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ADMM-Plus 기자회견 참조(《중앙일보》 2015/11/23; Copp 2015).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Lee(2016) 참조.



국해 및 동중국해 해양 안정과 현상유지 필요성에 대해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EAS, ADMM-Plus 등 아태지역 다자간 기구에서 미-중을 포함한 해양안보협력의 어젠다를 적극 발신해야 한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간의 관계가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해양규범의 정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협력기구에 미국을 포함시켜, 한-미-중-일 간 해양협력의 어젠다를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일간, 혹은 한중간 잠재적 해양갈등이 미-중간의 갈등 유발로 이어지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 간의 분쟁 발발이 동맹국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유의하면서, 남북관계의 지나친 긴장과 대립 구도를 방지해야 한다. 결국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과 정책을 보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한국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엽. 2012.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전략연구 > 14, 1.
- 박영준. 2015. “미-중 해군력 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해양전략”.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재성 편. 서울: 늘품플러스.
- 박영준. 2015. “새로운 아태지역 지정학 구도와 한미일 해양협력 과제”. < Strategy 21 > 36 (봄).
- Allison, Graham. 2015.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 Allison, Graham. 2015. “The Thucydides Trap.” in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ed. Richard N. Rosecrance and Steven E. Miller. Cambridge, M.A.: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Bautista, Lowell and Julio Amador III. 2013. “Complicating the Complex: China’s ADIZ.” *PacNet* #87A December 4.
- Blackwill, Robert D. and Ashley J. Tellis. 2015.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Brzezinski, Zbigniew. 2012. *Strategic Vision: American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 Brzezinski, Zbigniew. 2013. “Giants, but not hegemon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14.
- Bumiller, Elisabeth. 2012. “U.S. pivot to Pacific is just starting to take shap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2.
- Catherine, Wong Tsoi-lai. 2015. “China, Russia boost ties with naval drill in Mediterranean Sea” *Global Times* May 7.
- Chen, Heying. 2015. “FM slams US as Pentagon Vows Regular Sea Incursions” *Global Times* November 4.
- Cole, Bernard D. 2014. “The History of the Twenty-First-Century Chinese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67, 1.
- Copp, Tara. 2015. “China warns US it will defend its man-made islands in South China Sea” *Stars and Stripes* November 2.
- CSIS report. 2016.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 An Independent Review of U.S. Defense Strategy in the Asia-Pacific.” Washington, D.C.: CSIS.
- Department of Defense. 2012.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 Department of Defense. 2012. “Report to Congress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2.” Department of Defense.
- Department of Defense. 2014.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Department of Defense.



- Department of Defense. 2015.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Department of Defense.
- Forsythe, Michael. 2016. "Missiles Deployed on Disputed South China Sea Island, Officials say"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February 17.
- Friedberg, Aaron L. 2011.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Norton.
- Friedman, Hal M. 2007.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ert, Jonathan W. 2012. "Sailing into the 21st Century: Operating Forward, Strengthening Partnerships." *JFQ* 65.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Hammes, Colonel T.X. 2012. "Offshore Control is the Answer" *Proceeding Magazine* 138, 12. U.S. Naval Institute.
- Hao, Zhou and Guo Kai. 2013. "Japan scrambles fighters over Diaoyu" *Global Times* January 11.
- Heath, Timothy R. 2016. "China's Naval Modernization: Where is it headed?" *World Politics Review* 2, 10.
- Jiang, Jie. 2016. "China unveils five new theater commands" *Global Times* February 2.
- Jiang, Yi. 2015. "Sino-Russian drills show determination in safeguarding international order" *Global Times* August 24.
- Johnson, Jesse. 2016. "U.S. risks credibility gap by swatting China with international treaty it has never ratified." *The Japan Times* February 1.
- Johnson, Jesse. 2016. "MSDF training sub to visit Philippines; two escort ships to go on to port call in Vietnam." *The Japan Times* March 16.
- Kaplan, Robert D. 2007. "Lost in the Pacific: Asia Rising"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2-26.
- Kayyem, Juliette, 2012, "The Arctic's widening shipping lan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8.
- Krepinevich Jr., Andrew F. 2015. "How to deter China: the case for Archipelagic Defense" *Foreign Affairs* 94, 2.
- Kissinger, Henry. 2011. *On China*. New York: Penguin.
- Landler, Mark. 2014. "U.S. and China reach climate deal"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November 13.
- Li, Jie. 2013. "Reality forces Washington to take new military approach in East Asia." *Global Times* January 3.
- Liu, Mingfu. 2015. *The China Dream: Great Power Thinking and Strategic Posture in the Post-American Era*. CN Times Books.
- Liu, Yang. 2015. "As China rise alarms US think tanks, the importance of good ties must not be forgotten" *Global Times*. August 31.
- Lu, Yaodong. 2015. "Expanded Indo-Japanese military cooperation dangerous for Asia" *Global Times*.



- August 5.
- Modelski, George. 1987.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Macmillan Press.
- Nye, Jr., Joseph S.. 2013. "Our Pacific Predicament." *The American Interest* 8, 4.
- Nye, Jr., Joseph S. 2013. "Don't try to 'contain'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28.
- Nye, Joseph. 2014. "1914 Revisited?" *PacNet* #8. CSIS Pacific Forum. January 21.
- Nye, Jr., Joseph S. 2014. "Inevitability and War." <https://dash.harvard.edu/handle/1/12308566> (검색일: 2016. 11.30.)
- Richard N. Rosecrance and Steven E. Miller. 2015.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Cambridge, M.A.: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 Olson, Wyatt. 2015. "Study: US needs more subs, fewer carriers to combat Chinese military growth" *Stars and Stripes* September 21.
- Perlez, Jane. 2015. "China and Russia to hold Mediterranean drill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May 2-3.
- Perlez, Jane. 2015. "Images show China building airstrip in disputed sea"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17.
- Pillsbury, Michael. 2015. *The Hundred-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 New York: St.Martin's Griffin.
- Posen, Barry R. 1984.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Posen, Barry R. 2003,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8, 1.
- Ramzy, Austin and Chris Buckley, "Deal on conduct at sea is reached"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24, 2014.
- Rice, Susan E., "America's Future in Asia" (Georgetown University, Novemebr 20, 2013).
- Ross, Robert S. 2012. "The Problem With the Pivot: Obama's New Asia Policy is Unnecessary and counterproductive" *Foreign Affairs* 91, 6.
- Ross, Robert S. 2009. "China's Naval Nationalism: Sources, Prospects, and the U.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34, 2.
- Sanger, David E. and Rick Gladstone. 2015 "Piling sand, China literally gains ground"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10.
- Sanger, David E. 2013. "U.S. blames military in China for cyberattack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8.
-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 of China 2011: Annual Report to Congress.”
- The Secretary of Defense. 2015.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Annual Report to Congress.”
- Schwartz, General Norton A. and Jonathan W.Greenert. 2012. “Air-Sea Battle” *The American Interest*, February 20.
- Schweller, Randall L. and Xiaoyu Pu. 2011. “After Unipolarity: China’s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an Era of U.S. Decline.” *International Security*. 38, 1.
-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2015. “China’s Military Strategy .”
- Sun, Chenghao. 2015. “Sino-US ties far from showdown moment” *Global Times* August 11.
- Sun, Xiabo. 2015. “Speculation of 2nd aircraft carrier unwanted but expected” *Global Times* February 1.
- van Evera, Stephen. 1998.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22,4.
- van Evera, Stephen. 1999.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ng, Jisi. 2011.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90, 2.
- Wang, Xiaoxuan. 2012. “Navy has to get stronger.” *China Daily* July 27.
- Wen, Ya, “US threatens China’s maritime rights, say experts”, *Global Times*, January 1, 2013.
- Wong, Edward. 2010. “Chinese Military Seeks to Expand Its Naval Power:A Rapid Buildup is Seen”, *The New York Times* April 24.
- Wu, Xinbo. 2012. “Not Backing Down: China Responds to the US Rebalance to Asia.” *Global Asia* 7, 4.
- Yan, Xuetong. 2011. “How assertive should a great power b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
- Yan, Xuetong. 2011. “How China can defeat Americ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21.
- Yufan, Huang. 2016. “Q.and A.:Yan Xuetong urges China to adopt a more assertiv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February 9.
- Zhang, Junshe. 2015. “Washington hawks hype up Beijing parade.” *Global Times* August 27.
- 樋渡由美. 2012. 《専守防衛克服の戦略》. ミネルヴァ書房.
- 防衛省 防衛研究所 編. 2012. 《中國安全保障レポート 2011》. 防衛省防衛研究所.
- 〈朝日新聞〉



필자약력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동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 교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외교부 자문위원, 하버드대학교 초빙연구원, 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분과 위원장,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장을 역임했으며 주요연구 분야는 일본정치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다. 저서 및 편저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2016, 공저), 《비교군사전략론》(2014, 공저),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2014), 《21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2011, 공저),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2010, 공저), 《제3의 일본》(2008), 《일본정치론》(2007, 공저)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본 연구 보고서는 EAI 국가안보패널 (National Security Panel: NSP / 위원장 : 하영선 EAI이사장)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나지원 연구기획실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iwonra@eai.or.kr

